

"박근혜 즉각 퇴진 할 때까지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광화문 70만 촛불 운집

변백선 기자 | 승인 2016.12.11 16:32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본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 앞으로 행진해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며 폭죽을 쏘아올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열린 본대회 장소에서 폭죽을 쏘아올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인간띠잇기와 본대회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 놓인 세월호 희생자를 의미하는 구멍조끼에 노란리본을 붙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가 열리기 앞서 예술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민주노총이 경찰 차벽에 매단 대형 현수막 앞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 '박근혜 체포단'이 본대회에 앞서 청와대 100미터 앞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본대회에 앞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본대회에 앞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본대회에 앞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본대회에 앞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본대회에 앞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본대회에 앞서 청와대 100미터 앞에 도착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본대회 앞서 청와대 100미터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본대회에 앞서 청와대 100미터 앞에 도착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본대회에 앞서 청와대 100미터 앞에 도착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본대회에 앞서 청와대 100미터 앞에 도착해 경찰 차벽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의미에 스티커를 붙였다.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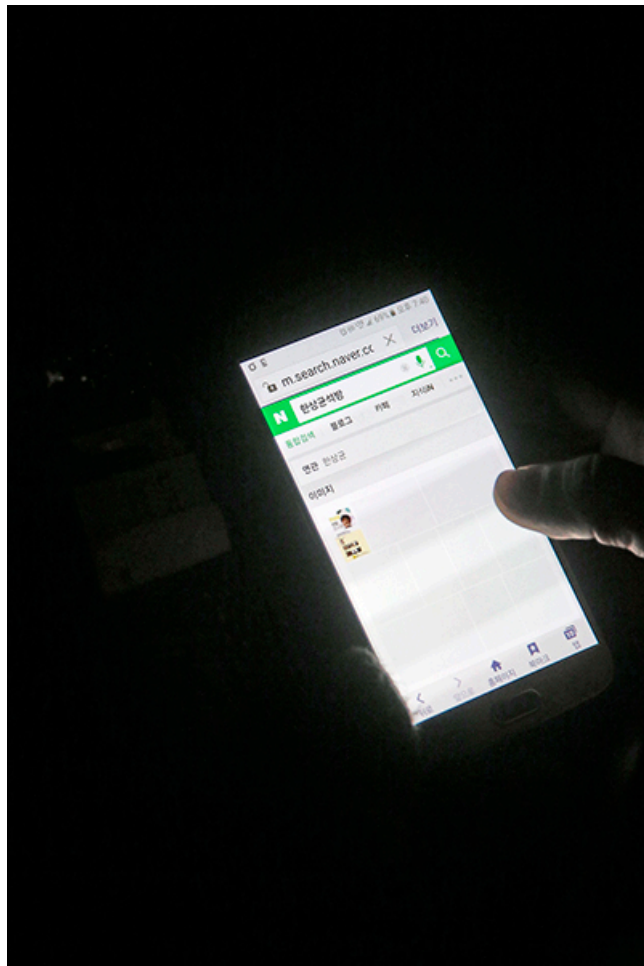
©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포털사이트에 '한상균 석방'을 검색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육성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본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를 향해 2차 행진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본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를 향해 2차 행진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본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를 향해 2차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본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를 향해 2차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본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를 향해 2차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본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를 향해 2차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심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걸린 '박근혜 구속, 한상균 석방' 현수막이 찢어져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7차 촛불집회가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충북범도민대회 / 사진_민주노총 충북본부



충북범도민대회 / 사진_민주노총 충북본부



충북범도민대회 / 사진_민주노총 충북본부



박근혜 즉각 퇴진 2차 인천시민대행진 / 사진_민주노총 인천본부



박근혜 즉각 퇴진 2차 인천시민대행진 / 사진_민주노총 인천본부



박근혜 즉각 퇴진 2차 인천시민대행진 / 사진_민주노총 인천본부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